

사서 계속교육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Continuing Education for Librarians : Current Situations and Suggestions

장 덕 현(Durk-Hyun Jang)** · 구 본 진(Bon-Jin Ku)***
윤 희 윤(Hee-Yoon Yoon)****

〈목 차〉

I. 서론	3. 전문직단체 주도형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 기업주도형
2. 관련 연구의 동향	5. 대학연계형
II. 우리나라 사서/정보전문직 계속교육 현황	IV. 사서계속교육 동향과 시사점
1. 국립중앙도서관	1. 사서 계속교육의 국가주도성 강화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2. 정보환경과 교육수요 변화에 따른 교육기관의 전문화
3. 국가기록원	3. 교육 플랫폼 변화의 반영
4. 지자체와 교육청	4. 사서교육 전문가 양성
III. 사서 계속교육의 유형	V. 결론
1. 국가주도형	
2. 지역대표도서관 주도형	

초 록

현재 우리나라의 사서 계속교육은 도서관 확충과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 교육과정 확대 및 충실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교육의 세분화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급변하는 지식정보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한 사서직 역량 개발, 사이버 교육콘텐츠 확보 등 다양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서교육기관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사서 계속교육에 있어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환경과 교육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사서계속교육의 국가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사서 계속교육 체계를 '교육원과 같은 전문기관으로 개편하고, 이를 통하여 사서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플랫폼의 변화를 수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키워드: 사서, 계속교육, 사서교육, 문헌정보학교육, 국립중앙도서관

ABSTRACT

Continuing education for librarians in Korea are coping with such problems as the inevitability of plans for the increasing demand for library education, needs for professional teaching personnel for the development of the curricula for the Continuing education, strategies to develop the competences of librarians for the new information ecology, designing e-learning contents for librarians, etc. In this regard,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continuing education for librarians in Korea and in foreign countries. It attempts to draw some implications, and to present suggestions. It, specifically, focuses on the rol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s main actor of continuing education for librarians in Korea. The suggestions made are to change the educational system with a creation of an independent institute, as it will bring up professional teaching personnel to work on continuing education for librarians, and will develop initiatives for the new educational system which embraces the changes in educational platforms.

Keywords: Librarian, Continuing education, Libra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Librarianship, National library of Korea

* 이 논문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사서교육원 설립을 위한 사전연구(2015)를 축약한 것임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dchang@pusan.ac.kr)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kadoshvon@daum.net) (공동저자)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pro@naver.com)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5년 5월 20일 •최초심사: 2015년 5월 26일 •게재확정: 2015년 6월 20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2), 181-202, 2015.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06.18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도서관과 사서의 기능과 역할 등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도서관이 아니라도 어디서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사서를 통하지 않고도 손쉽게 정보요구를 해결할 수 있게 된 오늘날의 정보환경에서 사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정보기술에 대한 지식, 그리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 기술의 습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성 제고뿐 아니라 사서들이 새로운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속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계속교육의 필요성을 일찍이 인지하고 다양한 계속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IFLA 교육연수분과(Education and Training Section)에서는 1976년에 사서와 도서관 직원의 계속교육 기준을 제시하였고, 미국도서관협회(ALA)에서는 1970년 ‘도서관 교육과 인력 활용(Library Education and Personnel Utilization)’ 발표 이후 2002년에 ‘문헌정보학과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성명(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and Human Resource Utilization: A Statement of Policy)’을 통해 계속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제공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였다. 특히 ALA 계속교육분과(Continuing Library Education Network and Exchange Round Table)는 계속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관중별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계속교육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 정립, 그리고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도하고 있다. 영국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CILIP)도 현장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계속교육을 구성하고 있으며, 정보관리협회(AIM)의 경우 수요 조사를 토대로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계획하고 사서들이 효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국립중앙도서관에 사서직공무원 직무 교육과정이 설치된 이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지역대표도서관 등에서 계속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간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도적으로 사서계속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교육의 내용과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교육대상자의 증가와 교육수요의 다양화,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세분화, 교육내용의 특성화 등 새로운 요구에의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의 어려움 및 전문 인력의 부재 등 교육훈련 역량 강화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사서계속교육이 지속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반면, 현실은 여전히 관중이나 교육대상별 차이 또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내실 있는 사서계속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사서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고 계속교육의 현황과 교육과정 및 특징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서계속교육 프로그램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의 동향

사서의 계속교육이 본격적으로 학문적 관심의 영역으로 다루어 진 것은 황옥경(2006)의 연구에서부터라고 본다.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2003년~2006년 교육과정과 미국도서관협회 및 미국연구도서관협회의 2005년도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한 후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직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요구하는 계속교육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안인자, 노영희, 최상기, 김혜주(2012)의 연구에서 학부 이수교과목 분석을 통한 현장 사서의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과 학부 이수 교과목과 국립중앙도서관의 계속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사서들의 교육 수요조사를 조사하고 ALA, SLA의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자출판과 저작권, 도서관미래, 폭소노미 및 통제어휘, 특허정보, 과학정보리터러시, 오픈액세스프로그램, 도서관가치인식, 라이선스 이슈, 고객응대 등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008년 이후 관중별 또는 담당업무에 따라 사서계속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어 장혜란, 홍현진, 노영희, 오의경(2008)은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중간관리자와 실무자로 구분된 계속교육 교과과정을 개발하였다. 또한 차미경, 이연옥, 양수연, 정혜미(2007)의 연구, 그리고 장윤금, 정행순(2008)의 연구는 공공도서관 어린이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계속교육의 효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용적인 계속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김태희와 리상용(2014)의 연구에서는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의 교육훈련과정과 지역대표도서관의 공공도서관 사서 대상 계속교육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또 심원식(2009)은 특별히 리에종 사서제 실시를 염두에 두고 주제전담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전략을 제안한 바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서계속교육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으나, 이 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국내외 사례와 국내의 여타 공무원교육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충실하게 고려하면서 국내외 사서교육기관의 계속교육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사서계속교육 프로그램의 발전방향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 우리나라 사서/정보전문직 계속교육 현황

1. 국립중앙도서관

우리나라의 사서계속교육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문화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9조 제1항 제5호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에 의거하여 국·공립도서관 및 사립도서관 등 전국 도서관의 사서직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공무원교육훈련법」에 근거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매년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교육훈련의 목표, 중점 추진과제 등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교육과정 편성을 위하여 전년도 말에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훈련 과정별 수요조사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사서교육의 교육 과정 및 횟수 결정, 과정의 유지 및 폐지 여부 결정, 교육 인원 조정 등을 시행한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 기관별로 과정별 교육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여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표 1>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직원 교육훈련 개요

구분	개요와 특징	
교육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할 사서 직원의 핵심 역량 개발 · 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서 직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 ·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도서관 직원의 전문 역량 강화 	
중점 추진과제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사서기본과정 기본교육 내실화 · 직급별/직무별로 체계화된 교육과정 마련 ·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브랜드 교육과정 개발 운영 · 도서관 유관기관과 협력교육 운영 	
교육대상	국가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소속 사서직공무원 · 중앙행정기관 소속 사서직공무원(전문도서관) · 국립대학(교) 및 각종 학교 소속 사서직공무원(대학도서관)
	지방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서직공무원(지방공공도서관) · 시·도교육청 소속 사서직공무원(지방공공도서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투자기관, 민간기업체등의 자료 소속 사서직원(전문도서관) · 사립공공도서관, 사립대학도서관, 특수도서관 소속 사서직원 · 초·중·고교 사서교사 등(공·사립 학교도서관) · 작은도서관의 사서직원(공·사립 학교도서관)

최근 3년간 운영된 교육과정은 <표 2>에 집약한 바와 같이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대별되며, 전자는 다시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2014년에는 <표 3>과 같이 집합교육 총 64개 과정, 사이버교육 총 53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표 2〉 국립중앙도서관의 교육과정(2014년)

구분	유형	과정명
기본	집합	신입사서기본
전문	집합	DDC, KDC, KDC협력과정:경북교육연수원, 국가자료종합목록활용, 도서관CEO, ,도서관공간구성, 도서관과 저작권, 도서관글로벌리더, 도서관리더(중간관리자), 도서관리더(최고경영자과정), 도서관리더(탐원), 도서관마케팅, 도서관문화프로그램, 도서관법령실무, 도서관성인 및 노인서비스, 도서관스마트서비스, 도서관 의사결정, 도서관의 이해(비사서직과정)
	집합	이용자관리, 도서관자료보존 및 복원, 도서관자료 서평쓰기, 도서관통계활용기법, 도서관행정, 도서관홍보, 독서지도심화, 독서치료심화, 독서토론코칭, 디지털도서관운영, 메타데이터활용, 분류목록최신동향, 사서를 위한 인문학강독, 사서를 위한 정보활용교육, 사서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사서한마당(워크숍), 어린이·청소년독서프로그램설계, 예비관리자과정, 장서개발, 주제전문사서기초(문학), 주제전문사서기초(심리학), 주제전문사서심화(경제/경영), 주제전문사서준비, 통합서지용KORMARC형식,
	사이버	KDC6관자료분류, 공공도서관과 청소년서비스, 도서관과 저작권, 도서관 장서관리, 독서지도심화, 독서치료기초, 어린이독서교실운영, 전문도서관 기초, 학교도서관협력수업, 도서관경영전략, 도서관공간구성, 도서관문화행사, 도서관이용자관리, 도서관장애인서비스, 독서지도기초, 독서토론코칭, 신입사서실무, 아동문학의 이해, 어린이독서상담, 어린이서비스의 기초, 어린이와의커뮤니케이션, 어린이책 서평, 어린이책에 대한 이해, 자료보존, 작은도서관 운영, 주제전문사서기초, 책 함께읽기, 학교도서관운영
기타	집합	교도소도서관운영, 독서지도, 병영도서관운영, 전문도서관운영, 학교도서관운영

〈표 3〉 국립중앙도서관의 교육과정 운영실적(2012-2014년)

구분	2012			2013			2014		
	과정수	횟수	총인원	과정수	횟수	총인원	과정수	총인원	
집합교육	기본교육	1	1	26	1	1	21	1	29
	전문교육	33	36	1,702	46	47	1,981	12	854
	기타교육	6	12	981	5	12	725	51	2,127
	계	40	49	2,709	52	60	2,727	64	3,010
사이버교육	22	29	7,523	26	31	8,180	53	8,074	
총계	62	78	10,232	78	91	10,907	117	11,084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대학도서관 사서를 위한 계속교육프로그램을 ‘전문인력 양성교육’ 형태로 연평균 2~6회 진행하고 있다. 주요 과정은 해외전자정보 컨소시엄 협상전문가 양성과정, 대학도서관 학술서비스 기획 및 홍보과정, 대학도서관 학술서비스 구축 및 운영과정, 대학도서관 공간 및 시설 활용 전문가과정, 대학도서관 법률정보 전문가과정, 사서 영어커뮤니케이션 능력개발과정, 대학도서관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과정 등이 있다. 2014년에는 해외전자정보 컨소시엄 협상전문가 양성과정(3일), 대학도서관 학술서비스 기획 및 홍보과정(3일), 대학도서관 학술서비스 구축 및 운영과정(3일), 대학도서관 공간 및 시설 활용 전문가과정(2일)의 4개 과정이 운영되었다.

3. 국가기록원

사서계속교육에 대한 참조사례로 기록관리전문직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볼 수 있다.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교육과는 2007년부터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승인되어 각급 기관이 기록관리법의 내용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와 사례 중심의 실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교육과정은 <표 4>와 같이 기본과정, 전문과정, 기타과정과 그에 딸린 세부과정으로 나누어지며, 매년 새로운 과정이 신설, 분화되거나 교육대상이 변하고 있다. 교육방법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나뉘며, 과정에 따라 연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기록 연구사들만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과 실무 담당자나 책임자와 기록관 업무 담당자, 그리고 기록관리학 전공 대학원생들까지 교육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표 4> 국가기록원의 교육과정(2014년)

구분	과정명	대상
기본 과정	기록관 실무과정	각급기관 기록관 담당자
	기록물관리기관 중견관리자과정	기록물관리기관 관리자(계장급 이상)
	신규 임용 전문요원과정	2013년도 기록연구직 경력경쟁채용 최종합격자 등
	신규 전문요원 과정	기록물관리전문요원(근무경력 2년 이하)
전문 과정	처리과 기록관리 실무	각급기관 처리과 기록관리 책임자
	원내 기록관리전문가 리더십 강화과정	원내 전문직직원, 기타희망직원
	기록관 운영과정	각급기관 기록물관리전문요원(기록연구사)
	기록관 법제연구 일반과정	기록관담당자, 전문요원
	기록관 법제연구 심화과정	기록물관리전문요원(기록연구사)
	기록물 보존과정	기록물관리기관 담당자
	기록분류체계와 선별평가 과정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기록정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전문요원 및 기록관 담당
	외국의 기록관리체계와 운영	기록물관리전문요원, 기록관 담당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종사자
	전문요원 교육역량강화 이론과정/ 실습	각급기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전자기록물관리 과정	전문요원, 기록관담당자, 시스템운영자	
기타 과정	국가기록원 직원 직무 교육	국가기록원 신규·전입 직원
	예비전문요원 관리과정	기록관리학 대학원생(2학기 이상) 및 교육원생(1학기 이상)

4.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자치단체나 시·도 교육청, 그리고 지역대표도서관 등에서도 사서계속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교육에 비하여 할애된 시간은 적지만 공무원교육 시수의 범위 내에서 사서직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지역의 도서관 현안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5년 교육청 관할 도서관의 사서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경

상남도 교육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정부3.0 재난안전(1시간), 휴먼 라이브러리 사람책(3시간), 도서관이용자 응대서비스(3시간), 도서관 장서관리(2시간), 공개토론회: 공공도서관의 독서활성화 우수사례(4시간) 등 실제적인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진 바 있다.

Ⅲ. 사서 계속교육의 유형

1. 국가주도형

가. 미국 의회도서관(LC) 사례

해외 사례 중 두드러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예와 같이 정부나 국가도서관이 주도하는 형태이다. LC가 주도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신입사서와 정책정보서비스(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담당자를 위한 인턴십에 치중하고 있다. 신입사서에 대한 인턴십은 주로 여름을 이용하여 장서보존, 지리와 지도, 인문학, 예술과 문화, 정보기술, 문헌정보학, 과학 등의 영역에 걸친 실무교육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영역은 다시 세부영역의 교육과정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 장서보존의 경우, 프로그램은 다시 도큐멘테이션, 실험, 전시, 보관, 처리실습, 열화방지 및 보존(Preventive Conservation), 연구수행, 처리, 관람, 기타 전문활동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LC의 계속교육은 소속 직원에 대한 계속교육에 치중하고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은 LC 내 전문교육담당 부서인 Internal University가 주관한다. 1997년부터 시작된 LCIU(Library of Congress Internal University)는 “미국 의회도서관의 경영진과 직원들의 지식과 기술 개발을 통하여 의회와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훈련활동을 제공한다. LCIU는 인근의 카톨릭대학교(CUA)의 문헌정보학대학원과의 파트너십 하에 대학원 과목의 일부를 LC에서 개설함으로써 도서관 직원들에게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LC는 도서관 장서와 인터넷 정보자원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충실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 전역의 교사와 사서를 대상으로 여름 계절학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학 주제 전문사서가 담당한다. 수업내용은 정보자원, 특히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활용, 정보자료의 교과 활용, 도서관 관련 웹사이트 활용법 등이다.

나. 미국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미국국립의학도서관(NLM)은 의생명과학분야 국가전문도서관으로서 180년의 역사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이다. NLM은 의학정보론(medical informatics) 및 의생명과학 사서의 전문적 역량강화(advanced medical librarianship)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

다. 이 교육은 NLM이 의생명과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설립한 Lister Hill National Center for Biomedical Communications의 의학정보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NLM은 의생명과학 전문사서를 위한 단기 교육, 색인과 정보조직 분야 담당사서를 위한 단기교육,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Scientific Visitors Program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국 주요 대학과 협약을 맺고 의학 분야 사서와 의료인력에게 의학정보론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NDL)

국립국회도서관의 교육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사서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은 <표 5>와 같이 강사 파견형 교육, 집합교육, 원격교육으로 구분되며, 강사 파견형 교육은 국립국회도서관의 직원이 파견된다. 그 외에 집합연수는 도서관 종합목록 네트워크 사업 담당자, 협동데이터베이스 사업 참가관의 실무담당자, 각 도(都), 도(道), 부(附), 현(縣) 등의 지정 도시 의회 사무국 실무자 등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표 5>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교육과정(2014년도)

구분		주제/강좌명	
파견 교육	레퍼런스	국회도서관 서비스 및 DB	국회도서관 DB, 국회도서관의 목록 검색과 대출 신청 및 레퍼런스 서비스 소개, 레퍼런스 협동 DB 관련 교육
		전문분야	분야별 정보조사방법(인문, 경제/산업, 과학기술, 법령,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아동서 관련 조사법 등)
		국립국회도서관 소개	국회도서관의 전시업무
	자료보존	도서관에서의 자료보존, 자료보존과 예방, 자료보존과 파손 자료 보수	
집합 교육	서지데이터 활용, 도서관 자료 디지털화, 자료 보존, 아동문학, 과학기술정보, 장애인 서비스, 참고서비스, 일본 고전문서, 아시아정보, 법령의화관청 자료 (국제어린이도서관 소장자료 이용)		
원격 교육	과학기술정보, 자료보존, 서지학 입문, 근현대 정치사, 디지털화, 과학기술정보, 박사 논문, 규격 자료를 통한 조사 방법, 경제산업정보의 조사, 도서관과 저작권		

2. 지역대표도서관 주도형

미국의 경우, 사서 교육의 주요기능이 주립도서관으로 위임되어 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나 LC가 주도하는 사서계속교육 프로그램보다 주정부나 주립도서관, 전문직 단체, 서지네트워크나 기업이 주관하는 사서 및 도서관 직원 계속교육 프로그램이 더 다양하다. 특히, 주정부 산하 도서관정책국 또는 각 주립(대표)도서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들은 사서에게 필요한 계속교육프로그램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972년 미국 도서관정보학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의 청문회에서 주(대표)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지역 내 사서를 위한 계속교육프로그램 제공을 명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주에서 계속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가운데 1) 주립도서관이 주도하는 사례, 2) 주정부가 주도하는 사례, 그리고 3) 주립도서관 주도 하에 도서관들이 독립적으로 기업형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 등을 소개한다.

가. 주립도서관 주도형 : 미시건주립도서관(State Library of Michigan)

미국 미시건주립도서관은 조직 내에 계속교육과(Continuing Education Unit)를 두고 주내의 각급 도서관 직원의 계속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관장 및 관리자, 중간관리자, 초임사서 등 직무 및 연한별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자체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표 6>과 같이 워크숍과 강연 등 오프라인 교육과 웹세미나 또는 온라인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 미시건주립도서관의 교육과정

구분	과정명
집합강좌	신임 임원 워크숍, 고급 관리자 워크숍, 작은도서관 및 농촌 도서관 컨퍼런스, 워크숍 시작하기, 서비스 품질 감사 체크리스트 프로그램
온라인	e러닝 소프트 스킬 프로그램, 장서관리, 도서관 창조와 학습 센터, Able프로그램,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중서부 지역의 협력, 도서관 마케팅, Ohio Reference Excellence,
웨бина	평가 및 기획, 이사회, 비즈니스, 어린이와 청소년, 장서관리 및 장서관리, 데이터베이스와 e자원, 경영, 발전 계획, 관리, 기금조성, MEL(Michigan Electronic Library), 학교도서관, 프로그래밍, 자원봉사자

나. 도서관국 주도형: 켄터키주 도서관 기록관국(Kentucky Department for Libraries and Archives)

켄터키주는 미시건주와 달리 주정부 도서관·기록관국(KDLA)이 주내 도서관의 사서와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지역사회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수업은 오프라인 강좌와 세미나, 토론회, 온라인 수업, KYVL(Kentucky Virtual Library), 웹 세미나(도서관경영, 성인 서비스, 목록, 장서 개발, 건설, E-rate, 고용/관리 정보원, 프로그래밍, 홍보/마케팅, 독자 상담, 참조 서비스, 소셜 미디어/ 테크놀로지) 등의 유형을 적절히 혼합·제공하고 있다.

다. 운영사 설립 :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의 Infopeople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California State Library)에서는 연간 150여 주제에 대하여 220회-250회 교육이 이루어지며, 연간 4천명 이상이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주내 50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반일, 1일, 그리고 몇 일간의 집합교육, 4-8주 온라인교육, 또는 VOD 기반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캘리포니아 지역 도서관을 주요 대상으

로 하고 있으며, 주립도서관 주도로 지역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을 담당할 온라인 플랫폼 Infopeople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에는 공공도서관, 캘리포니아주립대 도서관(CSU Fresno)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주 내 어느 도서관(또는 도서관 직원, 학생, 도서관 재단, 자원봉사자, 컨설턴트 및 실업상태의 사서 등)에서도 온라인 이용이 가능하다.

Infopeople의 특성은 도서관 맞춤형, 도서관 전문가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 도서관 기반의 실제적 교육, 고품질 자료 제공, 변화하는 전문지식 수용, 컴퓨터 기반의 교육제공, 사후 워크샵 등이다. 교육프로그램은 <표 7>과 같이 강사 주도의 비동기식 온라인 강좌, 자기 주도적 온라인 학습, 온라인 교육과정, 웹세미나, 대면워크샵, 워크숍, 리더십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On-Ground, 온라인코스, 웨비나, 아카이브 웨비나, 과거 교육자료, 팟캐스트 등의 형식으로 제공된다.

<표 7> Infopeople 교육프로그램(2015년)

구분	과정명
현장교육	Leading From Any Position: 도서관 효과성과 반응성 개선, 도서관 효과성과 반응성 개선
온라인	코어 레퍼런스 기초, 한정된 예산 내에서의 어린이 프로그램, 지역사회와 시민참여, 디지털 시대의 리더십 프로그램, 청소년 서비스, 디지털 분관 개발, 혁신 접화, 미래 경쟁력을 갖춘 도서관 공간, 도서관 경영의 기초, 관리자 및 지도자를 위한 대인관계 기술, 고객 서비스의 과제, 프로그래밍, 팀워크, 그래픽 디자인, 프로젝트 관리, 쉽게 배우는 예산, ESL 프로그램과 서비스
웨비나	파워 검색, 공공도서관에서 유아공간 만들기, 도서관 소유의 e북 플랫폼 구축, 고객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벤더 최적화, 감각을 향상시키는 스토리타임, 파워 검색, 소셜 미디어와 주제 색인, 어린이 문학의 새로운 기능, 청소년 문학의 새로운 기능, 데이터베이스와 보이지 않는 웹(hidden web), 도서관의 보안, 커뮤니티 조직 전략

3. 전문직단체 주도형

가. 미국도서관협회(ALA)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는 <표 8>과 같은 온라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은 도서관과 관련하여 기초, 발전, 동향, 핫이슈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다

<표 8> ALA Online Learning의 강좌목록

범주	세부주제
장서 관리	수집, 목록, 분류 & RDA, 장서개발, 디지털도서관, 전자정보원, 보존 및 방재
이슈와 홍보	홍보, 검열, 지적 자유와 저작권, 다양성, 정보 활용 능력, 도서관 이슈와 경향, 문해능력
도서관장 / 경영	예산, 건물 및 시설, 인증, 후원자, 재단, 이사회 및 자원봉사자, 인적 자원 및 직원 개발, 리더십과 경영, 마케팅 및 홍보, 기술
학교도서관	학교 도서관 평가, 사이버 폭력 방지, 전문 성장을 위한 프레임 워크, Google 사이트 만들기, 도서관의 변형,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
도서관 서비스 제공	어린이 서비스, 아웃리치, 프로그램과 전시, 독자 상담, 참고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및 도서관 이용 교육, 특수 장서 및 희귀본, 청소년 프로그램 및 서비스

루고 있다. 주제 분야는 5개 범주(장서개발, 이슈와 홍보, 도서관장 경영이슈, 학교도서관, 도서관 서비스 제공) 내에 여러 세부 주제로 나누어져 있으며 e포럼, 온라인 강좌, 웹캐스트, 웨비나의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 ALA 산하에 존재하는 여러 전문분과도 각각 분과별 소속 사서를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하고 있다.

나. 영국 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CILIP)

영국의 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인 CILIP(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는 주로 공공도서관 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CILIP 교육프로그램은 <표 9>에서 보듯이 현장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고 있으며, 전문 강사에 의한 맞춤형 교육도 가능하다.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은 오프라인 기반 집합교육과 전문강사가 단위 도서관을 방문하여 강의를 하는 방문교육 위주로 구성·운영된다는 점이다.

<표 9> CILIP 현장교육프로그램의 주제 및 세부 과정

주제	세부과정
비즈니스 기술	기금 신청, 비즈니스 마인드, 서비스 비용 측정, 예산 관리, 성과 기반 계획, 도서관협력
목록과 분류	목록, 텍소노미, 기관 리포지토리와 메타데이터, DDC, RDA, 학교도서관 목록, 메타데이터
저작권과 라이선싱	저작권과 e-러닝, 저작권, 웹 2.0과 저작권, 디지털 저작권, 라이선스 협상, 저작권 문제 해결
도서관과 정보관리	초록 정보서비스, 장서개발, 고객 친화 환경, 고객 서비스, 지식 공유와 협력, 도서관 평가, 법률정보의 검색과 사용, 도서관의 사회적 효과, 원격 문의 처리, 아카이브 조직, 아웃소싱
관리 및 인적개발	비즈니스 변화, 효율적인 팀 구성, 리더십과 코칭, 성공적인 팀 개발과 운영, 영향력 끼치기와 설득,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시간과 자원 활용 극대화, 프로젝트 관리, 전략적 계획과 사고, 관리 기술, MBTI로 팀 구성하기
마케팅 기술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의 브랜드화, 데이터 분석, 평가 설계,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 e서비스 방법, 내부 마케팅, 건강정보 서비스, 아웃리치, 마케팅 기획, 홍보와 멀티미디어
리서치 기술	인터넷 검색, 연구 전략, 연구를 위한 자원의 검색과 사용, 연구 리퍼키징
교수 및 학습 능력	교육 설계, E-러닝에서 M-러닝까지, 데이터베이스 교육, 방문세션의 기획과 제공, 표절 방지 교육, 대학의 국제 학생 지원, 연구학생 지원, 대학에서의 정보활용교육 수업, 대규모 그룹 교육, 교육에 혁신적인 방법 도입하기, 교사들과 일하기
웹과 인터넷 기술	구글 이용하기, 구글을 넘어서, 트위터, 블로그, 위키, RSS피드 사용하기, 소셜네트워킹, UCC사이트, 웹 2.0 기술 사용하기
어린이와 청소년	어린이 도서관 서비스, 가정학습, 숙제도우미, 독자 개발, 특수교육 대상 어린이 지원, 전략적인 학교 도서관 사서, 도서관 정보서비스에서 청소년들과 일하기

다. 영국정보관리협회(AIM)

영국의 AIM(Association for Information Management 구. ASLIB: Association for Special Libraries and Information Bureau)은 정보와 지식관리, 일반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정보전문가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과정, 현장교육, 일대일 트레이닝,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경영기법, 마케팅 등의 주제에서부터 메타데이터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에 따라 하나의 방식이 아닌 여러 방식

을 혼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라. 호주도서관협회(ALIA)

호주도서관협회(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는 도서관전문직단체로서 지속적인 학습과 직무능력 개발을 원하는 모든 회원을 지원함으로써 도서관정보학분야의 우수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회원은 ALIA PD(Professional development) 과정을 통하여 본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계속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PD과정은 본인의 전문적인 특정한 업무에 맞는 계속교육과 특정 주제와 관련된 역량을 활용하여 건강, 공공, 학교 도서관 등 해당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전문지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일본도서관협회(JLA)

일본도서관협회 연수사업위원회는 사서교육의 기획과 시행을 담당하며, 도서관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중견(中堅)직원 스텝업(Step Up) 연수’를 실시한다. 또한 연수 외에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JLA에서 시행하는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서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중견직원(사서자격 취득 후 도서관 근무경력 3년 이상) 스텝업 연수프로그램의 내용은 주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일본도서관협회의 교육과정

영역	과목명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서비스와 저작권,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도서관의 자유
도서관 지식기술의 전문성 향상	도서관 정책동향 및 도서관 경영, 도서관 서비스 계획, 도서관 운영의 평가와 지표, 레퍼런스 평가, 참고서비스, 참고질의 처리, 장서개발
도서관 관련 토론회	‘이어진 도서관’과 ‘이어지지 않은 도서관’ - 차세대에 살아남을 도서관은?
도서관 경영	정책동향 분석, 도서관 경영의 기본과 정책 입안 방법, 도서관 PR, 도서관 경영 평가, 정책제언 문서 작성, 도서관 경영 사례 평가
정보서비스	정보서비스 평가 방법, 정보서비스 평가의 실제, 정보기술과 도서관, 정보활용교육 지원, 정보활용교육 지원의 실제
정보자원관리	정보자원관리 총론, 목록관리와 OPAC, 도서관 시스템의 기능과 요건, 도서관 시스템 요건 정의, 웹서비스 설계, 도서관의 웹 활용
도서관서비스계획	도서관 서비스 계획 입안 프로세스, 도서관 서비스 계획 입안, 도서관 서비스 계획

4. 기업주도형

가. Amigos Library Services

Amigos는 미국 내의 도서관 서지네트워크로서 도서관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

리, 회원제 조직이다. 도서관에 계속교육, 벤더 할인, 그리고 전문적 컨설팅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도서관 서비스 네트워크 중 하나이다. Amigos의 교육과정은 OCLC, 영상보존, 경영 및 기술에서의 참고 및 테크니컬 서비스를 포함하여 도서관에 중요한 주제 전반을 다루는데, 교육유형은 면대면, 온라인, 자기학습이 있으며, 교육과정은 9개 주제 범주(편목, 디지털이미징, 전자책, Information Today 컨퍼런스, 보존, 참고봉사, 자원공유, 테크놀로지, Web)로 구성하고 있다.

나. Lyrasis

Lyrasis는 2009년에 설립한 비영리 회원 조직으로서, 성공적인 도서관 네트워크 협력체이다. Lyrasis는 디지털 콘텐츠에 중점을 두고 정보를 생산, 접근 관리하기 위하여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다른 문화유산조직과 협력하며, 이들 기관에 계속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 내용은 eContent 교육과 디지털 및 보존교육으로 대별되며, 교육방식은 컨퍼런스, 면대면, 온라인교육, 자율학습으로 구분된다.

다. Webjunction

Webjunction은 2003년에 시작된 OCLC 사서교육 커뮤니티로 도서관 직원의 정보공유, 문제해결 및 온라인 학습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로서 <표 11>과 같이 온라인 강좌, 웨비나, 다운로드가 가능한 커리큘럼, 도서관 현장 사례 등의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사서의 지식과 기술 함양, 역동적 도서관을 만드는데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은 도서관 기술, 도서관 운영, 도서관 서비스에 초점을 두며 현재의 도서관 현장에서 증시되는 영역에 대한 각종 자료(문서, 논문, 핸드아웃자료, 웨비나, 기타 다른 웹사이트나 정보에 대한 링크, 최신 뉴스)를 주제별로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율학습 및 웹 기반의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표 11> Webjunction의 교육과정

주제	내용
리더십	예산과 기금마련, 변화와 적응,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와의 관계, 도서관 친구들과 이사회, 혁신과 창의성, 법적 책임과 윤리, 조직 관리, 파트너십과 협동, 계획과 협력, 직원 관리
도서관 서비스	어린이, 장서, 고객서비스, 정보 리터러시, 정부정보, 마케팅과 아웃리치, 요구분석, 성인 및 노인, 정책, 프로그래밍, 공공도서관과 사법 접근권, 독자상담, 레퍼런스, 공간 계획, 스페인어 사용자, 이용자교육, 노동자 서비스, 어린이와 청소년
기술 (Technology)	컴퓨터와 인터넷, 컴퓨터 사용법, 컴퓨터 기자재, 전자책과 모바일 기기, 도서관 통합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공공 컴퓨터 관리, 공공 컴퓨터 네트워킹, Office와 기타 소프트웨어, 소셜 네트워킹과 웹2.0, 테크놀로지, 웹사이트 설계
직원 교육	역량(Competencies), 스태프 훈련, 개인적 성장과 발전, 학습자를 위한 정보원, 건강교육, 디지털커뮤니티, 농어촌도서관 프로그램 스페인어 사용자 아웃리치, 이용교육

5. 대학 연계형

미국 문헌정보학 대학원도 정규 학위과정과는 별도로 계속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도서관 직원에게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가운데 사서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는 일리노이 대학과 매우 활발한 계속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스턴 시몬스 대학의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Illinois Center for Innovation in Teaching & Learning

일리노이 대학의 CITL은 모든 형식의 교수학습 지원을 제공하는데, 교육 프로그램은 4종류(학위프로그램, 인증서프로그램, 강의, 컨퍼런스 및 이벤트)이며, 2014년 가을의 경우 교육내용은 어린이 정보원, 디지털 도서관, 도서관의 정보처리, 희귀본, 시스템 분석과 관리, 기록물 관리와 이용, 시스템 교육, 디지털 보존, 데이터베이스, 증거 기반 검색, 도서관의 테크놀로지, 시청각 자료, 청소년 서비스와 커뮤니티, 제본, 정보 조직과 접근, 데이터 큐레이션, 참고정보 서비스, 다큐먼트 모델링, 도서관 정보센터 운영, 데이터 마이닝, 정보이용과 이용자,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청소년 서비스, 전시, 메타데이터, 지적 자유 및 검열, 장서 개발, 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사회과학연구, 웹 디자인 구축과 조직, 온라인 정보 시스템 검색, 고령화와 정보, 정보활용능력, 독서, 저작권 등 총 42개 주제로 구성하고 있다. 그 가운데 문헌정보학 과정은 자율학습과 학기 기반 과정으로 제공하며, 자율학습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학기기반 과정은 일리노이 대학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나.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

영국에서 대학이 사서 계속교육을 담당하는 사례로는 UCL의 문헌정보학과와 '단기 코스'가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통상 학사학위 소지를 원칙으로 하며, 1학기에 장서관리와 보존, 인문학 속의 디지털자원, 역사적 서지, 세계의 전문직 환경, 인터넷기술, 경영학개론, 보존, 시스템 관리, 전자 출판, 정보학이론, 구술사, 2학기에는 접근: 정책과 실무, 보존이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법률 및 사회과학, 경영기술, 문서학, 서버기술과 구조적 데이터, 어린이청소년서비스, 웹 출판, XML 등의 과목이 편성되어 있다.

다. 일본 츠크바대학과 LIPER 프로젝트

일본에서는 2006년 발표된 LIPER(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and Education Renewal)보고서 발간 이후 대학 문헌정보학과들이 사서 계속교육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 이 보고서의 골자는 도서관 및 관련기관에 소속된 사서의 배치나 직무

내용을 바탕으로 직원양성 및 연수기관의 활동을 평가하고, 도서관 및 관련기관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범위를 정하여 사서 양성 및 연수기관의 역할과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 시험제를 도입하며, 교육연수 관련 인정평가 방안 등을 위한 지침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제안된 교육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의 운용·관리·이용 교육, 직원 연수 등의 교수법, 네트워크의 운용·관리, 웹 콘텐츠 구축·관리, 프레젠테이션 기술, 서비스: 지적 재산권·저작권, 정보 검색기술, 도서관 네트워크, 도서관 협력, 자료·미디어: 전자저널, 자료보존, 보호·제본 등이다.

이에 따라 게이오대학의 경우 매년 '연구발표회'를 통하여 도서관의 각 분야에 대한 변화의 방향을 공유하고, 디지털화, 정보활용교육, 도서관 홍보, 기관 리포지토리, 자원공유 등 다양한 주제별 연구발표 및 국내외 도서관 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츠쿠바대학은 매년 대학도서관 직원의 장기연수를 개최하고, 전국 대학도서관 중견직원을 대상으로 학술정보에 대한 최신동향 파악 및 도서관 경영·정보서비스의 기본에 대한 계속교육을 실시한다.

IV. 사서 계속교육 동향과 시사점

이상에서 국내외 사서 계속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관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시사하는 바와 지향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서 계속교육의 국가주도성 강화

미국 의회도서관의 사례를 보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내부 직원을 위한 교육에 집중하며, 사서 계속교육 각 주정부 산하 도서관국 또는 주립(대표)도서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LC가 2013-2014년도를 기준으로 LC의 정규직원이 약 3,250명이며, 가용예산도 약 6억 달러(한화 6,600억원)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토 면적이 워낙 넓어 LC가 전국의 사서를 위한 교육기능을 전담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LC 자체의 정규직원도 우리나라 전체 공공도서관 사서 수보다 많으므로 자체직원 교육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사서 계속교육에 대한 책임은 주정부와 주립(대표)도서관에 위임하고 있다. 1972년 미국 도서관정보학위원회 청문회에서 주립(대표)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지역내 사서를 위한 계속교육프로그램 제공을 명시한 사실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대다수 주에서 사서직 계속교육이 진행되며, 특히 도서관에서 중간관리자로 승진하거나 관장이 되는 경우 주 정부가 개설한 사서직 계속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요컨대 미국의 사서직 계속교육은 사실상 개별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는 주정부가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전통적으로 정부 역할이 크지 않은 영국과 영연방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전문직 단체가 사서직 계속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1876년에 설립된 미국도서관협회(ALA)는 자국 내에서 최고의 전문가 압력단체이며, 1877년에 설립된 영국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CILIP)도 왕립협회이고 호주도서관정보협회(ALIA)는 1937년, 뉴질랜드도서관정보협회(LIANZ)는 1910년에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짧게는 80년, 길게는 14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 규모와 역량을 지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와는 사정이 매우 다르다.

국내의 경우, 여전히 조직적 정체성 및 역량이 취약한 지역대표도서관, 교육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도서관 및 사서직을 대변하는 전직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는 한국도서관협회(KLA)의 현주소를 감안하면 현재처럼 국가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사서교육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의 경우도 주정부가 사서직 계속교육을 담당하는 미국 사례를 제외하면 북동유럽(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등), 중국 등에서도 국가도서관이 사서직 계속교육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중심의 사서 재교육에 대한 책무성과 주도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2. 정보환경과 교육수요 변화에 따른 교육기관의 전문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이 법적 근거가 부여된 유일한 사서계속교육기관으로서 각종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체제는 현실적 타당성을 지닌다고 본다. 그러나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도서관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서와 도서관 직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문화과라는 ‘과’ 단위의 조직으로는 향후에 확대될 계속교육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도서관 직원은 45% 증가한 반면에 교육시설 및 담당인력은 정체상태에 있어 도서관 총직원 수 대비 연간 집합교육 이수율이 같은 기간동안 4% 감소(17%→13%)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도서관 수의 증가와 함께 도서관 현장의 요구도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관중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교육, 학교도서관의 비사서교사 인력들을 위한 전문교육, 작은도서관 담당자를 위한 교육과정 등 다양한 유형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계속교육프로그램은 운영프로그램과 인력, 공간 등 인프라 미비로 인하여 변화된 도서관의 지형과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수요, 주제별로 특화되는 정보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들은 다양한 관중을 대상으로 사서직의 생애주기별 요구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새로

은 지식정보 요구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제별(의학, 법학, 산업, 예술 등)로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도 이러한 사례를 응용하여 수준별, 요구별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한편, 국내의 다른 공무원 교육기관은 기관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조직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변화하는 행정서비스 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사실 국내에서도 일반직,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대단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각 부서 산하에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원’, ‘연수원’, ‘학교’ 단위의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또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의 경우 지방행정연수원이 2014년 기준 집합교육 총 72개 과정, 101회, 사이버교육 총 120개 과정, 1,200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경우 2014년 총 241개 과정, 364회에 달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기본교육과정은 직급별로 구분·운영하며, 전문교육은 직무역량 개발 및 사회트렌드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외국공무원교육은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과 우호 증진을 위한 과정, 그리고 스마트 교육은 정보화와 사이버교육으로 과정을 구분하며, 주요 국정과제 이해와 국정현안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감사원 산하 감사교육원은 감사직원교육, 자체감사교육, 회계교육, 국제공공감사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는데, 2014년에는 총 47개 과정, 118회(사이버교육 제외)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산림청 산하 산림교육원은 2014년 집합교육,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일반인교육, 외국인교육을 통틀어 103개 과정, 188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청렴연수원은 교육과정을 집합교육과 찾아가는 청렴교실, 사이버교육으로 구분하고 2014년의 경우 총 22과정, 124회의 집합교육과 총 13개 과정 66회의 찾아가는 청렴교실과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였다. 2014년 11월말을 기준으로 국내의 주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현황을 집계하면 <표 13>과 같다.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면, 사서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기존과 같은 국립중앙도서관 내의 ‘과’가 운영하는 체제에서 탈피하여, ‘교육원’과 같은 교육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전문성과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는 것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3. 교육 플랫폼 변화의 반영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에서는 Moodle 또는 MOOC와 같은 Open Courseware, 그리고 웨비나 등과 같은 온라인 강좌가 확대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도 지난 3년간 년 평균 약 50개 과정 8천명 가량의 사서들이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는 급속히

〈표 13〉 주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기능 (2014. 11. 기준)

	기관	주요기능	위치
경호실	경호안전교육원	경호안전 분야 전문가 양성	서울 종로구
감사원	감사교육원	감사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경기 파주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공무원반부패 청렴교육	충북 청주시
미래창조과학부	우정공무원교육원	우정 전문인력 양성	충남 천안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교육분야 전문인력 육성	서울 서초구
외교부	국립외교원	전문외교관 양성 및 외교안보 문제 연구	서울 서초구
법무부	법무연수원	법무행정 전문인력 양성	경기 용인시
인사혁신처	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공무원 기본·전문교육	경기 과천시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전북 완주군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식품 분야 전문교육	전남 나주시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분야 전문인력 양성	인천 서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토교통 분야 전문교육	제주 서귀포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해양수산공무원 교육	부산 기장군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 전문인력 양성	경기 수원시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 전문인력 양성	충남 천안시
조달청	조달교육원	조달분야 전문교육	경북 김천시
통계청	통계교육원	통계분야 전문교육	대전 서구
경찰청	경찰교육원	민주경찰 양성 전문교육	충남 아산시
	경찰수사연수원	수사보안요원에 대한 전문교육	충남 아산시
	중앙경찰학교	신입경찰관 및 전·의경 교육훈련	충북 충주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양성	충남 천안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민방위·방재 전문인력 양성	충남 천안시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해양경비공무원 전문교육	전남 여주시
산림청	산림교육원	산림분야전문교육	경기 남양주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대전 유성구
법제처	법제교육과	법제분야전문교육	서울 서초구
병무청	병무연수원	병무행정 전문인력 양성	서울 영등포구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이버교육이 확산될 것은 자명하지만, 동시에 면대면 교육도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LC의 경우도 초임사서를 위한 인턴십을 중시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에서도 1주간의 출석수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주립도서관들도 사이버교육과 면대면 교육, 집합교육 등 모든 형태를 수용하고 있다. 영국 CILIP의 교육프로그램도 역시 면대면 교육과 방문교육 등 오프라인 교육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요컨대 해외 사례의 전반적인 경향은 사이버교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수업이 많고 전문 교수진이 지역을 순회방문하는 등 집중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사서직 계속교육과 같은 전문가 교육에서는 현장사례의 교환 및 상호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사서직은 전문직이면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 도서관의 업무사례나 협업 등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최근 정보자원의 빅딜 등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컨소시

업 등의 협력체가 구성될 뿐만 아니라 국가 주도형 정보자원 관리체계와 공동보존 이니셔티브 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도서관 상호간의 협업과 정보공유는 중요하다. 따라서 기본 콘텐츠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되 출석수업과 그룹 토의 등을 반드시 포함하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예컨대, LC의 교사대상 프로그램은 전체 이수대상 시수 중 출석 시수의 비중을 약 60%로 배정하고 나머지 40%는 교육이수 전후의 Follow-up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서 계속교육을 위한 사이버교육을 확대하려면 별도의 e-learning 담당조직이 필요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 사례에서 보듯이 Infopeople과 같은 별도 조직을 설치하여 온라인 교육을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조직을 국립중앙도서관 조직 외에 설치하거나 기업 등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과 연계하거나 KERIS의 KOCW 등과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사서교육문화과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그 산하에 e-learning 센터 등 새로운 플랫폼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사서교육 전문가 양성

외국의 많은 교육기관은 사서 계속교육과 도서관정보정책 연구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수한 전문연구자를 채용하고 다양한 현장사례를 꾸준히 연구함으로써 사서의 계속교육용 강의콘텐츠를 개발·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주립도서관은 도서관 업무 전문가나 컨설턴트가 계속교육프로그램을 담당·설계하며 해당분야 사서에겐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영국에서도 전문강사가 단위 도서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사례 중에는 행정안전부에 소속된 교육훈련기관들이 현장문제를 해결하고 조직의 성과창출과 직결되는 교육에 초점을 두고 일과업무로 바쁜 교육대상자를 방문·교육하는 수요자 중심의 주문·방문형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외국정부 및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국제협력을 추진하는가 하면, 공무원 교육을 넘어 국민에게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도 도서관 전문 강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사서 계속교육의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 NLM의 예에서 보듯 주제전문사서가 도서관 직원 뿐만 아니라 의료, 법률, 건강, 미디어,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전문가도 교육시키는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전문사서가 법률(legal informatics), 의료(medical informatics) 분야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장하고 있지만 국내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예컨대, 법률분야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 법률정보조사과목을 개설하도록 법으로 규정

하였지만 전문사서의 부족으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의학분야는 더욱 심각하여 의료전문가를 위한 의학정보교육은 물론 도서관에서 일상적 건강정보 제공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전무하다. 최근 문헌정보학계는 앞으로 공공도서관의 실버세대 서비스, 특히 건강정보 제공이 가장 중요한 서비스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미래 정보서비스 수요에 대비한 주제별 전문사서와 강사를 양성함으로써 사서직 계속교육이 다른 주제전문가에게 확대·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수한 교육/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와의 연계를 모색하는 것 또한 바람직할 것이다.

V.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사서 계속교육은 도서관 확충과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격차 확대, 교육과정 확대 및 충실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교육수요의 세분화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급변하는 지식정보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한 사서직 역량 개발 및 관중별 전문교육의 시급성, 사이버 교육콘텐츠 확보 등 다양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서교육기관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그 핵심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를 대표하여 국내 도서관 인력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책임을 진 기관인 만큼 그 위상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사서들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서관에서 대국민 지식정보서비스를 선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환경과 교육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사서 계속교육의 국가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사서 계속교육 체제를 '교육원'과 같은 전문기관으로 개편하고, 이를 통하여 사서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플랫폼의 변화를 수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사서 계속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하여 사서인력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정보환경과 이용자 요구의 변화를 상시적으로 파악하여 '사회환경 변화를 예측·대비하는 미래지향적 교육기회 제공'을 고민해야 한다. 모든 도서관과 사서가 급변하는 미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의 문호를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도서관의 외연을 확장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도서관 또는 사서 상호간의 개방적 사고를 촉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사서의 역량 제고와 서비스 활성화로 발현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2010. 『사서교육훈련시스템 및 시설공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2013. 『국립중앙도서관연보』.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김태희, 리상용. 2014.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5(1): 363-395.
- 안인자 등. 2012. 학부 이수교과목 분석을 통한 현장 사서의 계속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27-52.
- 심원식. 2009. 주제전담사서 양성을 위한 사서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541-560.
- 장윤금, 정행순. 2008. 공공도서관 어린이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계속교육 현황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481-501.
- 장혜란, 홍현진, 노영희, 오의경. 2008. 대학도서관 사서를 위한 전문 계속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3): 133-168
- 차미경, 이연옥, 양수연, 정혜미. 2007. 공공도서관 어린이 사서의 계속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황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1): 95-115.
- 황옥경. 2006. 대학도서관 사서직 계속교육 프로그램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2): 173-190.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9. *ALA' Core Competences of Librarianship: Final version*. <<http://www.ala.org/educationcareers/sites/ala.org.educationcareers/files/content/careers/corecomp/corecompetences/finalcorecompstat09.pdf>> [cited 2015. 5. 1].
- CILIP. 2012. *CILIP Chartership Handbook : 2005 regulations*(with revisions up to 2012). <[http://www.cilip.org.uk/sites/default/files/documents/Chartership%20handbook%20\(2012%20Regulations\).pdf](http://www.cilip.org.uk/sites/default/files/documents/Chartership%20handbook%20(2012%20Regulations).pdf)> [cited 2015. 5. 1].
- 国立国会図書館. 図書館員の研修. <<http://ndl.go.jp/jp/library/training/index.html>> [cited 2015. 5. 1].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0. *Report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Librarians and Facility improvement*.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3. *Annual Report 2013*.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Kim, T. H. & Lee, S. Y. "A Study on Improving a Continuing Education for Public Librarians:Focusing on Privatized Public Libraries."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 363-395.
- Ahn, I. J, et al. 2012. "A Study on a Continuing Educational Program for Librarians – Based on Analysis of University Credi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1): 27-52.
- Jang, H. R et. al. 2008. "A Study on the Curriculum Development of Continuing Education for Academic Librarian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3): 133-168.
- Shim, S. 2009. "Curriculum Development of Training Librarians for Subject Liaison Serv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541-560.
- Chang, Y. K and Jung, H. S. 2008. "A Study of the Effectiveness and Status of Continuing Education for Children's Librarin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4): 481-501.
- Cha, M. K. et al. 2007. "A Survey of Children's Librarians in Public Libraries for Developing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8(1): 95-115.
- Hwang, O. K. 2006. "A Study on the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for Academic Librarian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2): 173-190.